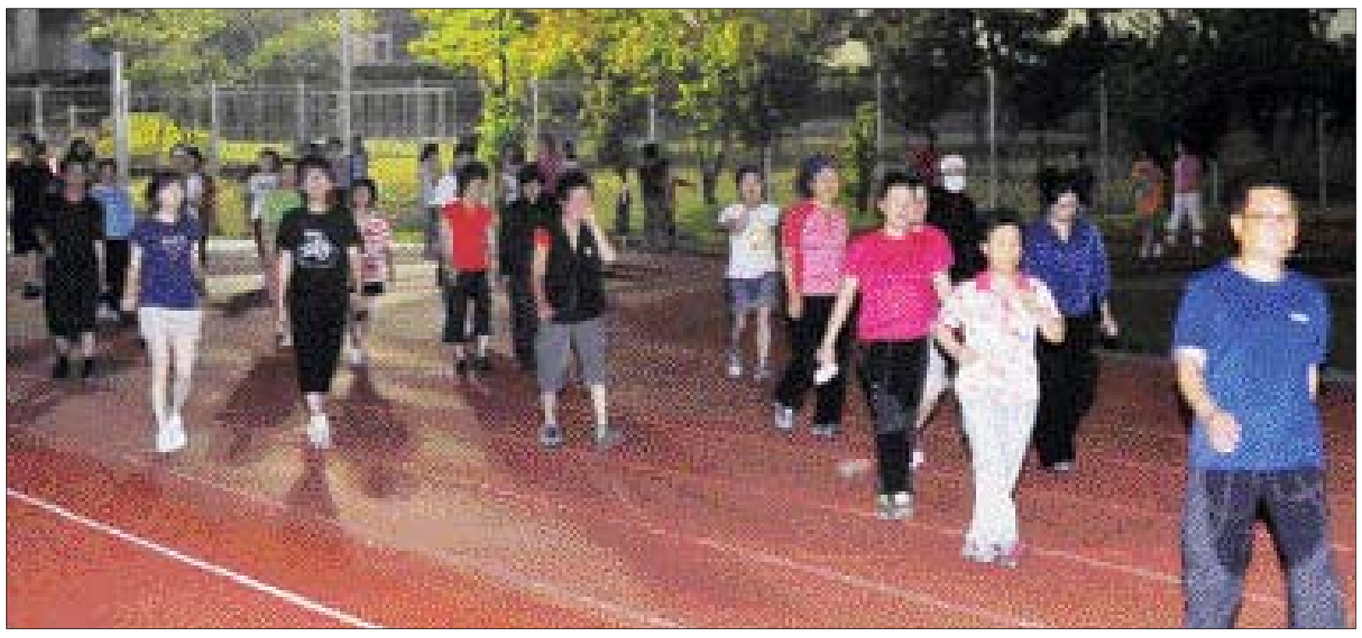


**'이열치열'…열대야 극복** 지난 22일 밤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열대야 때문에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이 걷기를 하며 더위를 이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폭염 식히기엔…'감질 소낙비'

주말·휴일인 24일과 25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다.

하지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린 뒤 25일에는 더위가 다소나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 26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광주 낮 최고기온이 30도로 평소보다 2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7·28일에도 약간의 비가 내려 낮 기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음주 한 주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사이에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는 소나기성으로 양이 적어 낮 기온은 여전히 27~33도까지 오르고, 함평·나주·장성·무안 등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 발효가 예상된다.

25일에는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사이 비가 내리는데다 구름도 많이 끼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가 29도로 더위가 잠시나마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틀간 강수량은 많아야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한 주는 지역별로 폭염주의보 발효와 해제가 지속되고, 열대야 연일 밤 잠을 설치게 했다"면서 "이번 주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약간 떨어져 한숨을 돌리겠으나 열대야는 여전해 찜통더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전주 성폭행범 이름 바꿔 광주서 범행

## 남구 진월동 연쇄 성추행범 잡고보니

## 공개수배후 연탄 피우고 자살 시도
## 지인 제보로 치료중인 병원서 검거

'광주 진월동 연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의 용의자 정모(28)씨가 경찰의 공개수배 11시간 만에 검거됐다. 정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공개수배된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수배 11시간 만에 검거=광주남부경찰은 지난 22일 정오께 '진월동 연쇄 성추행 사건'의 용의자를 강간상해 혐의로 공개수배했다. 정씨는 경찰의 공개수배 직후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의 공개수배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께 자신의 집 컴퓨터에 "내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30분 뒤 정씨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쉬고 싶다. 오후 6시에 깨워달라"고 말한 뒤 가스레인지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했다. 정씨의 여자친구는 이날 오후 6시께 정씨가 자신의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와 정씨의 선배(36)씨에게 알렸다.

정씨의 선배는 정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밤 11시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정씨를 검거했다. 공개수배 11시간 만이었다.

◇남구 진월동 등 6차례 용의자=경찰은 정씨가 진월동 일대와 전주 등에서 모두 6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입원 중인 정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성범죄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15분 광주대학교 인근의 한 원룸 앞에서 A(여·23)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5분 뒤인 새벽 4시40분에는 인근의 한 음식점 앞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지난달 19일 0시께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성추행 사건과 같은날 새벽 2시께 진월동 또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성추행 및 폭행 사건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의 DNA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전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정씨는 누구=화순이 고향인 정씨는 지난 2008년 대학을 졸업한 뒤 전주시 완산구에서 우유대리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지난 1월 광주로 이사해 우유대리점을 열었으며, 지난 3월에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전남 모 대학 태권도학과를 졸업해 순발력 등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 3단인 정씨가 여성들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월동 자신의 집에서 숨어 지내왔으며, 수년 전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해 한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호남예술제 종합상 시상** 제55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종합상 수상자들이 23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김수호(해맑은이화어린이집), 김서연(어린이나라어린이집)씨,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전신혜(전경란미술학원)씨와 종합최고상을 수상한 김지영(세운그림유치원)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뒷거래 의혹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지난 22일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업주인 이모(47)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경마장 개장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측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순천과 광주, 경기도 용인 등 이씨의 자택 3곳과 순천시 덕암동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천화상경마장은 마사회가 지난 2006년 개장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사업을 철회했으나,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재승인함에 따라 최근 경마장 개장 공사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리베이트 의사' 200만원 벌금

### 광주지법 추징금 3600만원 선고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제약업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3일 제약회사 6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문모(39)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약제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어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리베이트가 의약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6개 제약회사로부터 의국비 지원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는 등 총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문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문 교수 등 광주, 전남·북 대형병원 의사 10명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나머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8일로 연기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해수욕장 독성 해파리 주의보

### 서남해 해역 등 전국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

국립 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연안에 독성 해파리가 나타나고 있어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독성 해파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23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결과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동중국해역에서 처음 생겨 현재 전남, 경기, 전북, 경북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다음 달부터 출현량이 늘 것으로 수산과학원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 자생하는 독성해파리인 커튼원양해파리도 충남, 전북, 경북, 동해 일대에서 출현하고 있다. 이 해파리는 어류를 치사시키는 맹독성 해파리로 매년 해수욕객에 접촉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해파리 20여종 중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라스톤입방해파리 등 6종이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파리에 쏘이면 먼저 상처부위를 알코올로 씻고 오일을 바르거나 따뜻한 타올로 찜질해주거나 식초와 베이킹파우더로 응급처치해주면 된다. 호흡 곤란, 오한, 구역질 같은 2차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좋다.

/연합뉴스

## 서울 女약사 납치·살해 중국집 배달원 2명 검거

40대 여성 약사가 납치·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은 23일 낮 12시40분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28)씨와 신모(28)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한모(48·여)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한씨의 시신을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양천구의 한 중국집에 있다가 체포됐다. 중국집은 납치 현장으로 추정되는 한씨의 집에서 불과 40~50m 떨어진 곳이라고 경찰이 전했다.

한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0분께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라세티 차량을 몰고 밖으로 나가고서 실종됐다가 20일 오후 3시께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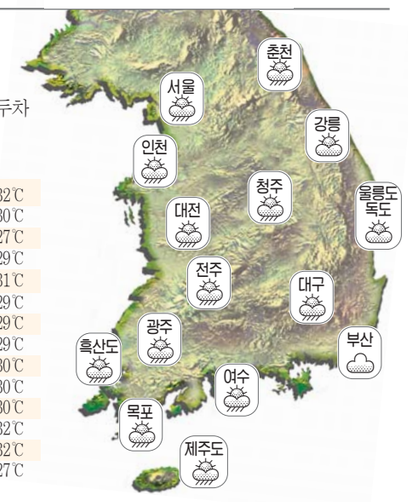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35분 / 해짐 19시 42분 / 달뜸 18시 29분 / 달짐 03시 36분

**낮한때 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한두차례 소나기가 오겠다.

| | | |
|---|---|---|
| 광 주 | 구름많고한때비 | 25/32℃ |
| 목 포 | 흐리고한때비 | 25/30℃ |
| 여 수 | 흐리고한때비 | 24/27℃ |
| 완 도 | 흐리고한때비 | 25/29℃ |
| 구 례 | 흐리고한때비 | 23/31℃ |
| 해 남 | 흐리고한때비 | 25/29℃ |
| 장 흥 | 흐리고한때비 | 25/29℃ |
| 고 흥 | 흐리고한때비 | 24/29℃ |
| 순 천 | 흐리고한때비 | 24/30℃ |
| 영 광 | 흐리고한때비 | 25/30℃ |
| 진 도 | 흐리고한때비 | 25/30℃ |
| 전 주 | 흐리고한때비 | 24/32℃ |
| 남 원 | 흐리고한때비 | 22/32℃ |
| 흑산도 | 흐리고한때비 | 23/27℃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동~남 | 0.5~1.0m |
| 먼바다 | 남동~남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동~남 | 0.5~1.0m |
| 먼바다 | 남동~남 | 1.0~1.5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보통 | 경고 | 높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동~남 | 0.5~1.0m |
| 먼바다 | 남동~남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동~남 | 0.5~1.0m |
| 먼바다 | 남동~남 | 1.0~1.5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1:13 13:00 | 06:37 18:28 |
| 여수 | 07:53 20:44 | 02:09 13:57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5(일) | 26(월) | 27(화) | 28(수) | 29(목) | 30(금)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5/30 | 25/30 | 24/30 | 24/30 | 25/30 | 25/31 |

## 원로 코미디언 백남봉씨 폐암 악화 중환자실 입원

원로 코미디언 백남봉(본명 박두식·71)이 건강 악화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방송코미디협회에 따르면 폐암 투병 중이던 백남봉씨는 경기도의 한 재활원에서 요양을 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며 서울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백남봉은 2008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치료를 받으며 힘든 투병생활을 해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달 전 재활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병세가 호전돼 산책을 할 정도였지만 최근 다시 건강이 악화됐다. 오랜 투병으로 몸이 허약해진데다 폐렴 증세도 겹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KBS 장기자랑으로 데뷔한 백남봉은 성대모사 실력을 바탕으로 '원맨쇼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으며, 2000년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 꿈 향한 열정에 '장애'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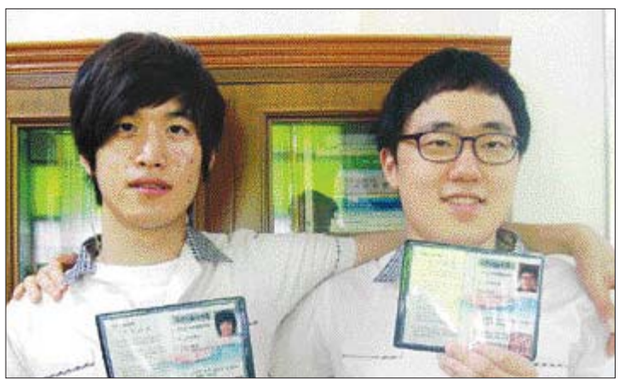
## 광주전자공고 청각·지적장애 학생 기능사 자격증 시험 합격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고교생들이 일반 학생들도 쉽지 않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성영) 3학년 김현진(청각장애 2급)·윤순재(지적장애 2급)군이 최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한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

김현진 군이 응시한 종목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이다.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는 디자인에 관한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시각디자인과 관련된 광고·편집·포장디자인 등의 컴퓨터 활용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군의 장래 희망은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윤순재 학생이 취득한 자격은 '전자출판기능사'이다. 전자출판기능사의 주요 직무는 의뢰받은 원고의 편집체제를 설정하고 문자 및 이미지를 입력하며, 지면배치와 표작업같은 편집작업을 거쳐 전체적인 판형과 여백·단·자간·서체·그림 등의 여백을 조정해 교정작업을 거친 후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출력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윤 군은 출판디자이너가 꿈으로 자신 만의 아이디어로 책을 출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학교로부터 기능사 자격증을 전달받은 김현진(왼쪽)군과 윤순재군이 자격증을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탓에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한 공정을 숙달하기 위해 일반 학생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광주전자공고 장기석 교감 선생님은 "일반 학생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해 취득한 자격증인 만큼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모두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고교생 훈계폭행 알고보니 대학생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놀이터에 있는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 55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던 서모(19)군 등 대학생 4명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고교생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가라며 훈계 차원에서 꿀밤을 때리기만 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